

# 中共의 古典文學研究家에 관한 研究

金 學 主\*

## 1. 叙 論

이 논문은 文敎部 후원 아래 “중공의 중국학 연구자 및 업적 조사 연구”란 제목 아래 추진된, 史學·哲學·文學을 포함하는 중공의 중국학 연구자들의 연구업적 중심의 인명록을 만들어 보려는 작업에서 얻어진 부산물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모든 學術·文化가 정치에 예속되어 이끌리고 있는 中共에서의 中國 古典文學研究는 대체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밝혀 보려 한다. 맑스의 이론에 바탕을 둔 중공의 古典觀은 자연히 그들 연구에도 자유세계와는 다른 현상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곧 毛澤東은 「新民主主義論」(「毛澤東選集」第二卷)에서,

“일정한 文化(觀念形態의 文化)는 일정한 社會의 政治·經濟의 反映이며, 한편 일정한 社會의 政治·經濟에 위대한 영향과 作用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經濟가 기초이고 政治는 經濟의 集中的 表現인 것이다. 이것은 文化와 政治·經濟의 關係 및 政治와 經濟의 關係에 대한 基本觀點이다. 그렇다면 일정한 형태의 政治와 經濟는 먼저 그 일정한 형태의 文化를 결정하게 되며, 그런 뒤에 그 일정한 형태의 文化는 비로소 일정한 형태의 政治와 經濟에 영향과 作用을 가하게 될 것이다.”

고 하면서, 다시 자거네 古典文化의 계승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서울大 人文大 教授

“중국의 長期 封建社會 중에 찬란한 古代文化가 창조되었다. 古代文化의 발전과정을 분명히 정리하여, 그 封建性을 지닌 糟粕은 떼어 버리고 그 民主性을 지닌 精華를 흡수한다는 것은 민족의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必要條件인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모든 것을 간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古代 封建統治 階級の 모든 썩어빠진 것들과 古代의 우수한 人民文化 곧 어느 정도 民主性과 革命性을 띠고 있는 것들을 구별해 내야만 한다.”

이것이 “비판적으로 중국의 古代 文化 遺産을 계승한다”는 中共 黨 路線의 근거인 것이다.

다시 毛澤東은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에서,

“文藝批評에는 두 가지 標準이 있는데, 하나는 政治標準이요, 다른 하나는 藝術標準이다. ……어떠한 階級社會 중의 어떤 階級이라도 모두 政治標準을 첫째 자리에 놓고, 藝術標準은 둘째 자리에 놓게 마련이다.”

고도 하였다. 곧 古代文化에 속하는 古典文學을 研究하기 위하여는 먼저 거기에 封建統治階級の 썩어빠진 요소가 있는가, 또는 民主的이고 革命的인 성격을 띤 人民的인 것이 있는가를 따져 “批判적인 계승”을 하도록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 그 批判이나 연구는 政治標準을 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古典文學 연구는 물론 모든 學術·文化가 政治에 예속 되는 것, 또는 政治 路線이나 黨 政策을 따라야만 함을 뜻하는 것이다.

더우기 古典文學 뿐만이 아니라 모든 古代文化란 실상 共產主義의 政治的 성격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封建主義 시대의 遺物들이다. 이런 遺物들을 經濟·政治를 앞세우는 共產主義 支配에 合當하도록 연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中共은 大陸을 차지한 이래로 實利의 추구를 위하여 여러번 政策 路線의 방향을 바꾸어 왔다. 學術·文化가 政治에 예속된 것이라며는 그러한 政策의 변화에 따라 學術·文化의 성격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論文은 中共의 政治 路線의 變化를 추적하면서, 그 變化에 따라 古典文學 연구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본시 목표로 하였던 이들의 研究業績에 대한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학자의 표본으로는 1900년대 초기에 출생한 사람으로 中共의 黨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사람들 20명을 골랐다. 1900~9년 사이의 출생자가 8명, 1910~8년 사이의 출생자가 9명, 1921~6년 사이의 출생자가 3명이다. 이들은 모두 한창 나이 때부터 中共의 政치를 경험하며 古典文學研究를 추진해온 사람들이며, 大陸의 中國文學界를 대표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정식 共產黨員도 3명이 있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할 古典文學 研究家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는 大學에서 공부한 일이 없는 사람들도 9명이나 된다. 되도록 中共의 黨 路線을 충실히 따르는 학자들을 뽑다 보니 그들 出身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게 된 것 같다. 반면, 외국에 유학했던 학자들도 5명이나 된다.

물론 이들 20명이 中共의 古典文學研究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中共의 黨 路線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었다고 볼 수 있는 학자들임으로, 다른 학자들 보다는 政策의 變化에 비교적 冷情히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여준 政策 變化에 따른 古典文學 연구의 성격 變化를 추구하여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結論은 전체 학자들의 실질적인 반응 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것이 될 것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다시 이들의 연구업적은 著書가 중심이 될 것이다. 論文은 분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전부를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論文과 著書는 대체로 일관된 작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古典文化研究家 20人과 그들의 業績

1) 夏承燾：1900년 생. 字는 瞿壽, 原字는 癸禪 또는 瞿禪이라 했음. 浙江省 溫州 사람으로, 溫州師範學校 卒業(1918). 고향의 小學校 선생에서 시작하여 中學校를 거쳐 이미 二次大戰 전에 詞學을 주로 연구하여 大學의 中文學 教授가 되었다. 그 뒤로 浙江大學 中文科 教授(1942), 浙江師範學院 中文科 主任(1952), 杭州大學 中文科 教授 兼 教研室主任(1958)을 歷任하였고, 北京大學과 北京師範大學에서 詞學을 講義한 일도 있다(1963).

이 밖에 中國文學藝術工作者第三次代表大會의 대표로 被選된 일도 있었고(1960), 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 特約研究員과 「文學評論」의 編輯委員을 지내기도 하였다. 또 1964년에는 全國 政治協商會議 第四次會議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 〈主要著述〉

- 1932 : 「白石歌曲旁譜辨」(「燕京學報」第12期)
- 1948 : 「唐宋詞錄最」(華夏出版社)
- 1955 : 「唐宋詞人年譜」(上海古典文學出版社, 뒤에 上海古籍에서 修訂本 나옴)
- 1956 : 「唐宋詞論叢」(上海古典文學出版社)
- 1957 : 「怎樣讀唐宋詞」(吳熊和와 共著, 浙江人民出版社)
- 1958 : 「姜白石詞編年箋校」(上海中華書局)
- 1959 : 「白石詩詞集」(校輯; 人民文學出版社)
  - 「唐宋詞選」(盛靜霞와 共注, 中國青年出版社)
  - 「杜詩札記」(「文學遺產」增刊 第七輯)
- 1961 : 「李清照詞的藝術特色」(「文學評論」第四期)
  - 「龍川詞編年箋校」(牟家寬와 共著, 上海中華書局)
- 1962 : 「辛棄疾」(游止水와 共著, 上海中華書局, 上海古籍 再印)
  - 「讀詞常識」(吳熊和와 共著, 中華書局)
  - 「岳飛滿江紅考辨」(日本 京都大學「中國文學報」第16冊)
- 1963 : 「詞源注」(人民文學出版社)

- 1976 : 「瞿髡詞」(油印本)  
 1982 : 「月輪山詞論集」(中華書局)  
 1983 : 「金元明清詞選」二冊(人民文學出版社)  
 未詳 : 「唐宋詞欣賞」(百花文藝)

2) 唐圭璋 : 1901년 생. 江蘇省 南京 사람. 10세에 아버지가 죽어 小學校長의 도움으로 南京에서 小學·中學을 마치고 그 곳 中央大學 中文科 졸업. 南京에서 小學·中學·大學의 선생 노릇을 하다, 中央大學이 重慶으로 옮겨가자 그 곳으로 옮아가(1940) 中央大學의 講師·副教授·教授를 歷任. 中共 治下에서 南京大學과 長春 東北師範大學의 中文科 教授에서 시작, 1953년에 다시 南京으로 돌아와 南京師範學院 中文科 教授로 있다.

이 밖에 南京市人民代表, 江蘇省政協委員, 南京市文聯副主席, 江蘇省 作家協會會員, 江蘇民盟盟員 따위의 일도 아울러 맡고 있다.

#### 〈主要著述〉

- 1936 : 「南唐二主詞滙箋」(南京叢編社)  
       「詞話叢編」(南京叢編社)  
 1956 : 「辛棄疾」(上海人民出版社)  
 1958 : 「宋詞四考」(江蘇人民出版社)  
 1959 : 「宋詞三百首箋注」(上海中華書局)  
 1965 : 「全宋詞」(修訂本, 北京中華書局)  
 1981 : 「全金元詞」(中華書局)  
       「元人小令格律」(上海古籍出版社)  
 1983 : 「唐宋詞簡釋」(上海古籍出版社)  
 近刊 : 「宋詞紀事」  
       「校注詞苑叢談」

3) 陳友琴 : 1902년 생. 原名은 陳楚材, 字는 琴廬, 筆名을 珥人 또는 夏靜岩 등으로 썼다. 安徽省 南陵縣 사람. 별다른 學歷도 없으나 일찍이 上海 市立務本女子中學 선생 노릇을 하였고, 杭州之江大學 中國文學

講師(1946)를 거쳐 杭州師範學校에서 가르쳤다. 1949년 中共이 杭州에 들어오자 杭州師範의 副校長이 되었고, 1953년에는 北京大學 文學研究所 副研究員, 1958년부터는 中國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副研究員을 지내고 있다. 1962년부터는 「光明日報」와 「文學遺產」의 編輯委員도 맡았다. 1953년에 中國共產黨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 〈主要著述〉

1935 : 「清人絕句選」(開明書店)

1936 : 「萍踪偶記」(游記集, 北新書局)

1958 : 「白居易詩評述滙編」(科學出版社)

1959 : 「溫故集」(論文集, 中華書局)

1961 : 「不怕鬼的故事」(毛澤東이 文學研究所에 命하여 陳友琴이 主編)

「白居易」(1978, 上海古籍出版社重印)

1962 : 「白居易卷」—古典文學研究資料滙編之一(中華書局)

「中國文學史」(中國科學院 文學研究所編, 唐宋時代 文學史記述에 참여, 人民文學出版社)

1978 : 「唐詩選」(編輯과 修訂에 참여, 人民文學出版社)

1979 : 「長短集」(論文集, 浙江人民出版社)

1982 : 「元明清詩一百首」(上海古籍出版社)

未詳 : 「清詩選」

4) 姜亮夫 : 1902년 생. 原名은 姜寅青, 字가 亮夫. 雲南省 昭通縣 사람. 아버지도 辛亥革命 때 활약했고, 그도 中學生 때부터 學生運動에 참여했다. 成都高等師範學校를 거쳐 北京師範大學을 나왔고, 清華大學 大學院에 들어가 語言文字學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中學校 선생을 거쳐, 1928년에는 上海로 가 大夏大學·暨南大學·復旦大學 등의 교수, 1932년엔 北新書局 編輯, 1933년에는 河南大學 교수 歷任. 1934년에는 프랑스로 가 파리大學에서 공부를 하였고 (1937년 까지), 귀국하여 東北大學 교수 겸 文學科 主任(1937), 雲南大學 교수 겸 文法學院 院長(1941~46) 등을 지냈다. 한편 「民主週刊」의

편집에 참여하여 國民黨의 감시 대상이 되었었다. 다시 1947년엔 英士大學 교수 및 院長, 1948년엔 昆明師範學院 교수, 雲南省 教育廳長, 雲南省 文教處長을 지냈다.

1950~51년엔 雲南革命大學의 高級研究班에 들어가 공부하고 다음 해엔 雲南博物館에서 일하였다.

1953년에는 浙江師範學院 교수 및 科主任으로 옮겨 앉았는데 뒤에 杭州大學으로 개편되어 지금까지 그곳 中文科 교수로 있다.

浙江省政協의 第二·三·四屆 委員으로 뽑히기도 하였고, 1962년엔 中國 作家協會와 省文聯史學會에 가입하였다.

#### 〈主要著述〉

- 1924 : 「中國文學鳥瞰」(雲南旅蜀學會刊)  
 1927 : 「詩騷聯綿字考」(「國學月報」·「民鋒雜誌」)  
 1929 : 「初·高中國文教本」(北新書局)  
 1930 : 「文學概論講述」(北新書局)  
       「中國歷代小說選」(北新書局)  
 1933 : 「中國文學史論」(河南大學)  
 1934 : 「歷代各體文選若干種」(北新書局)  
 1935 : 「歷代人物年里碑傳綜表」(商務印書館, 1959年 修訂再版)  
 1936 : 「屈原賦校注」(東北大學, 1956년 人民文學出版社)  
 1949 : 「陳本禮楚辭精義留眞」(1956년 上海出版公司)  
 1955 : 「屈賦今釋」(浙江師院印行)  
 1956 : 「瀛涯敦煌韻輯」(24卷, 上海出版公司)  
 1957 : 「陸機年譜」(古典文學出版社)  
       「張華年譜」(上海古典文學出版社)  
 1967 : 「楚辭書目五種」(中華書局)  
 未詳 : 「楚辭論文集」(上海中華書局)  
       「楚辭通故」(60卷, 中華書局)

5) 余冠英 : 1906년 생. 江蘇 揚州 사람. 清華大學 中國文學科 졸업. 同大學의 助教·講師를 거쳐 教授가 되었다. 抗日戰爭 기간엔 西南聯合

大學教授로 있으면서, 國文教育에 큰 영향을 끼친 「國文月刊」을 主編하였다.

中共이 大陸을 차지한 뒤엔 中國科學院 哲學社會科學部(현재의 中國社會科學院) 文學研究所 研究員으로 옮겨 지금은 그곳 副所長으로 있다. 그 밖에 中國作家協會에 가입하여 理事로 있고, 中國作家 代表로 第一屆 亞非作家會議에 참가한 일도 있다. 또 「文學研究」와 「文學評論」의 編委도 맡고 있다.

#### 〈主要著述〉

1954 : 「樂府詩選」(人民文學出版社)

1956 : 「漢魏六朝詩論叢」(上海古典文學出版社)

1957 : 「三曹詩選」(人民文學出版社)

「詩經選譯」(作家出版社)

1963 : 「詩經選」(人民文學出版社)

「漢魏六朝詩選」(人民文學出版社)

「中國文學史」(三卷, 主編, 人民文學出版社)

1978 : 「唐詩選」(人民文學出版社)

6) 楊蔭深 : 1908년 생. 原名은 楊德恩, 字는 譯夫. 浙江省 鄞縣 사람. 浙江省立第四中學을 다닐 때부터 文學을 좋아하여 創作을 시작했다. 뒤에 上海美術專科學校로 들어가 그림을 공부하며 戲曲과 小說을 썼다. 1928년부터 上海 등 中學校의 教員 노릇을 하면서 中國民間文學과 古典文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34년에 商務印書館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中共治下에서도 四聯出版社, 上海文化出版社, 上海辭書出版社에서 일해왔으며, 지금은 上海辭書出版社 「辭海」編委 및 編審을 맡아 보고 있다.

이밖에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上海市委員會의 第二·三·四·五屆委員, 中國民間文藝研究會 會員, 上海市文學藝術界聯合會 委員 등으로도 활약하였다.



## 〈主要著述〉

1930 : 「中國民間文學概說」(華通書局)

1932 : 「先秦文學大綱」(華通書局)

1933 : 「李後主」(商務印書館)

「五代文學」(商務印書館)

1934 : 「中國文人故事」(中華書局)

「王維與孟浩然」(商務印書館)

「高適與岑參」(商務印書館)

1935 : 「中國文學史大綱」(商務印書館)

1936 : 「中國文學家列傳」(中華書局)

「中國學術家列傳」(光明書局)

「少年英雄」(開明書店)

「中國俗文學概論」(世界書局)

「中國游藝研究」(世界書局)

(1963 이후)

未詳 : 「兩漢文學編年長編」

「魏晉南北朝文學編年長編」

「隋唐五代文學編年長編」

7) 吳世昌 : 1908년 생. 字는 子臧. 浙江省 海寧縣의 가난한 집안出身임. 어려서 孤兒가 되어 여러 해 商店의 助手와 店員 노릇을 하다가, 1925년에 嘉興秀州中學에 工讀生으로 입학, 1927년에는 南開大學 豫科 二學年에 입학, 다음 해 燕京大學 英文科에 입학함. 1932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하버드·엔징學社의 國學研究所 장학금을 받아 3년 뒤 碩士學位를 딸.

곧 北平研究院 史學研究所 編輯에 임명되었다가 抗日戰爭이 터진 뒤 1938년에 西北聯大(뒤에 西北大學으로 바뀜) 講師에서 출발, 中山大學·湖南蘭田師院·桂林師院·中央大學 등의 교수를 지냄(1939~1947). 1947년에는 영국 옥스퍼드大學에 가 講義를 맡는 한편 그 학교 碩士學位도 받았다. 1962년에 귀국하여 中國科學院 文學研究所(지금은 中國社會科學院에 소속됨) 研究員을 맡고 있다.

그는 中學 때부터 革命運動과 文學活動을 하여, 1925년엔 學生愛國會 會長에 被選되었었고, 1931년에는 燕京大學生抗日會 第一屆 主席에 뽑히어 「火把」라는 抗日 刊行物을 내기도 하였다. 그는 中學·大學 시절에 이미 詩·小說·戲曲(英文作品도 있음) 등을 발표했으나, 뒤에는 차츰 古典文學 研究로 기울어져 갔다. 그는 英語에 숙달한 위에 英國에서 講義하는 동안 영국·프랑스·이태리·소련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 회의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했으므로 외국에는 상당히 학자로서 명성이 있었다<sup>1)</sup>. 그리고 그의 수많은 논문이 「通報」·「옥스퍼드 저널」 등 외국 학술지에 발표되는 한편, 영어·독일어·소련어 등으로 번역된 것도 적지 않다.

이 밖에 1964년에는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에 출석하여 第四屆政協全國委員會委員이 되기도 하였고, 1978년에는 다시 第五屆政協全國委員會委員이 되었다.

#### 〈主要著述〉

- 1935 : 「散文甲稿」(北平立達書局)
- 1948 : 「中國文化與現代化問題」(上海觀察社)
- 1961 : 「紅樓夢探源」(英文本, 옥스퍼드大學出版社)
- 1963 : 「羅音室詩詞存稿」(香港商務印書館)
- 1979 : 「菲律賓共和國」(共編, 商務印書館)
- 未詳 : 「紅樓夢」(英譯本 校審, 外文出版局)
- 「紅樓夢探源外編」(上海古籍出版社)

8) 吳恩裕 : 1909년 생. 遼寧省 沈陽市 사람. 1933년 清華大學 哲學科를 졸업한 뒤, 1936년에 영국 런던大學 런던政治經濟學院에서 연구, 정치학박사 학위를 땀다.

1939년에 귀국하여 重慶國立中央大學 政治科 교수가 되었고, 그 뒤 北京大學 政治科 교수를 거쳐(1946~1952), 1952년 이후엔 北京政法學

1) 日本 橋川時雄 編 「中國文化界人物總鑒」(1936)에선 “공부할때부터 여러 方面에 걸친 著述을 하여, 文·史에 無所不通하다.”고 칭찬하고 있다.

院 敎수를 지냈다. 1978년에는 다시 中國社會科學院 研究員에 임명되었다.

그는 특히 1950년대부터 「紅樓夢」 연구를 시작하여, 「石頭記」의 早期抄本인 己卯本の 抄者를 발견하고, 曹雪芹<sup>2)</sup>의 佚著인 「廢藝齋集稿」의 殘篇을 찾아내는 등 曹雪芹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와 함께 紅樓夢 연구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많은 考證을 하였다. 그는 본시 政治科 敎수였으므로 「西洋政治思想史」·「맑스의 政治思想」·「民主政治의 基礎」·「唯物史觀精義」·「西方歷代政治論著選讀」 등 많은 著書와 Engels의 「共產主義原理」·「歐洲大陸共產主義運動의 發展」 및 맑스의 「맑스와 Engels의 몇通의 편지」 등 많은 譯書도 내고 있다.

#### 〈主要著述〉

1954 : 「曹雪芹의 生平」 (未詳)

「關於曹雪芹」 (未詳)

「永忠吊曹雪芹의 三首詩」 (未詳)

1963 : 「曹雪芹의 故事」 (未詳, 뒤의 增訂本은 「曹雪芹傳記故事」로 바뀜)

「有關曹雪芹十種」 (未詳, 增訂本은 「曹雪芹叢考」라 바뀌어 上海古籍出版社에서 냄)

1973 : 「曹雪芹의 佚著和傳記材料의 發現」 (未詳)

1976 : 「己卯本石頭記新探」 (未詳)

「曹雪芹佚著淺探」 (未詳)

「曹雪芹生平組畫」 (未詳)

9) 傅庚生 : 1910년 생. 遼寧省 沈陽縣 사람. 1926년에 東北大學 豫科를 거쳐 本科를 다니다 1931년에 北京大學 中文科로 옮겨감.

1934년 대학을 졸업한 뒤 北京弘達學院·銘賢學院·東北大學·華西大學·北京大學·遼東學院·西北大學 등의 中文科에서 講師·副教授·敎授를 歷任하였고, 科主任 또는 文學院 院長 등을 맡기도 하였다.

2) 曹雪芹(?~1763); 清代 小說家로 「紅樓夢」 (一名 「石頭記」)의 作者. 清末 大族의 衰滅하는 모양을 敘述한 것으로 보통 120回本이 전하며, 大陸에서도 위대한 現實主義 作品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 〈主要著述〉

- 1943 : 「中國文學欣賞舉隅」 (開明書店)  
 1946 : 「中國文學批評通論」 (商務印書館)  
 1954 : 「杜甫詩論」 (上海文藝聯合出版社)  
 1959 : 「國語選」 (人民文學出版社)  
     「杜詩散釋」 (東風文藝出版社)  
 1963 : 「文學賞鑒論叢」 (東風文藝出版社)

10) 錢鍾書 : 1910년 생. 字는 默存, 號는 槐聚, 中書君이란 筆名을 쓰기도 하였다. 江蘇 無錫 사람. 1933년에 淸華大學 外國語文科를 졸업하고, 1937년에는 영국 옥스퍼드大學 英文科를 졸업, 副博士學位를 받았으며, 이어 프랑스 파리大學 研究院으로 가 프랑스文學을 연구하였다.

귀국 후 昆明西南聯合大學 外文科·國立師範學院 英語科·上海暨南大學 外語科 교수와 北京圖書館 英文館刊顧問·中央圖書館 外文部總纂 등을 지냈다. 中共治下에 들어와 淸華大學 外文系 교수를 지냈다. 1953년 大學의 整備가 있어 文學研究所(처음엔 北京大學 소속, 뒤에 지금의 中國社會科學院인 中國科學院 哲學社會科學部에 소속 됨)로 가서 지금까지 中國古典文學研究組의 研究員으로 있다. 中國作家協會 會員이며, 단편소설집 「人獸鬼」(1946, 開明書居)와 장편소설 「圍城」(1947, 晨光出版公司)을 내기도 하였다. 最近에는 1982년말에 國務院에서 결정하여, 9年 計劃으로 中國의 文·史·哲에 걸친 歷代 古籍을 다시 整理 出版하는 일을 맡고 있는 古典整理出版規劃小組에도 참여하여 일하고 있다.

## 〈主要著述〉

- 1941 : 「寫在人生邊上」 (散文集, 開明書店)  
 1943 : 「十六·十七·十八世紀英國文學裡的中國」 (英文版, 北京圖書館館刊)  
 1948 : 「談藝錄」 (文論, 開明書店)  
 1958 : 「宋詩選注」 (人民文學出版社)  
 1979 : 「舊文四篇」 (文論, 上海古籍出版社)  
     「管錐編」 (4册, 古籍考釋, 北京中華書局)

11) 周振甫 : 1911년 생. 浙江省 平湖縣 사람. 學歷은 잘 알 수 없고, 1932년부터 上海開明書店 編輯所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1953년부터 文化大革命 때까지는 中國青年出版社 文學編輯室에서 일하였다. 1971년 이후에는 中華書局에서 「明史」를 點校하는 일에 참여하다가, 1975년에는 正式으로 中華書局 二編室로 옮겨갔다. 그러나 지금은 人民文學出版社 魯迅著作編輯室에 차출되어 「魯迅全集」을 注釋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人民日報」의 「新聞戰線」 및 「新聞業務」 및 「文藝報」 등에 孟子·韓愈·柳宗元·歐陽修 등의 文論을 비롯하여 陸機의 「文賦」, 「文心雕龍」 등에 관한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 〈主要著述〉

1961 : 「毛主席詩詞淺釋」 (上海文藝出版社)

1962 : 「魯迅詩歌注」 (浙江人民出版社)

1963 : 「詩詞例話」 (中國青年出版社)

1981 : 「文心雕龍選譯」 (中華書局)

「譚嗣同文選注」 (中華書局)

1983 : 「三國演義」 (節編, 寶文堂)

12) 吳調公 : 1914년 생. 江蘇省 鎮江市 사람. 江蘇省立鎮江師範學校 高中部師範科의 國語教師를 지내다가 中共이 大陸을 차지한 뒤에는 蘇州의 江蘇師範學院·南京師範學院 中文科에서 敎수를 歷任하였다. 全國作協江蘇分會의 會員이기도 하다.

#### 〈主要著述〉

1957 : 「談人物描寫」 (江蘇人民出版社)

「與文藝愛護者談創作」 (長江文藝出版社, 1958년에 修訂版 나옴.)

1959 : 「文學分類的基本知識」 (長江文藝出版社, 4月初版, 12月 修訂版 나옴)

1960 : 「論文學的眞實性和黨性」 (長江文藝出版社)

1982 : 「李商隱研究」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古代文論今探」 (陝西人民出版社)

13) 王瑤 : 1914년 생. 山西省 平遙縣 사람. 小學·中學을 거쳐, 1934년에 清華大學 中文科에 입학함. 淸日戰爭이 일어나자 학교를 따라 昆明으로 옮겨 가 大學院에서 漢魏六朝文學을 전공함.

졸업 후에는 清華大學 講師·副教授를 지내다가, 1952년에 北京大學 中文科 교수로 옮겨 앉았음. 현재 魯迅研究室 研究員도 겸임하고 있으며, 1954년부터 1958년까지 「文藝報」의 編委를 맡기도 하였음.

#### 〈主要著述〉

1951 : 「中國新文學史稿」 上冊 (上海新文藝出版社)

1952 : 「魯迅與中國文學」 (上海平民出版社)

1953 : 「中國新文學史稿」 下冊 (上海新文藝出版社)

「中國文學論叢」 (上海平民出版社)

1954 : 「李白」 (「中國歷史人物叢書」之一, 上海人民出版社)

1956 : 「中古文學史論集」 (上海古典文學出版社)

「陶淵明集」 (編注, 人民文學出版社)

「關於中國古典文學問題」 (上海古典文學出版社)

1959 : 「中國詩歌發展講話」 (中國青年出版社)

1973 : 「中古文學思想」·「中古文人生活」·「中古文學風貌」(1948년에 완성한 「中古文學史論」을 香港 中流出版社에서 「中古文學史論之一」·「二」·「三」의 세 單行本으로 나누어 刊行.)

14) 張畢來 : 1914년 생. 貴州省 鑪山縣 사람. 고향에서 小學을 졸업하고, 貴陽의 貴州省立師範學校를 나와 小學教員을 지내기도 하였다. 1936년 杭州의 國立浙江大學 文學院 教育科에 입학했다. 1937년 抗日戰爭으로 浙江大學이 貴州로 옮겨갔으나, 그는 학교를 떠나 浙江一帶에서 抗日工作을 하였다. 그는 中學에서 大學에 이르기까지 抗日活動에 적극 참여하였고, 1938년에는 中國共產黨에 가입하여 이름조차 張一之라 바꿨었다. 그리고 金華에서는 臺灣의 抗日義勇隊 조직을 도왔고, 義勇隊 秘書와 中共地下黨支部 書記를 지냈다. 1940년에는 이름을 張四維로 바꾸어 上海로 와 활동하다가 1941년에는 日軍에 체포되었다. 풀려난 뒤

張修文이라 改名하고 上海의 中學校 선생노릇을 했었다. 1942년 세계제 2 차대전 이 시작되면서 그는 上海를 떠나 桂林·南寧 일대에서 활동하며, 張畢來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國立桂林師範學院 講師·副教授 및 民盟廣西省支部 委員을 지내다가, 1947년에는 체포되어 일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1949년에는 香港·上海를 거쳐 長春으로 가서 東北大學과 東北師範大學 中文科 교수를 지냈고, 1953년엔 上海 華東師範大學 中文科 교수, 다음 해엔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中學語文編輯室 主任이 되어 全國中學의 語文教課書를 編輯하였다. 1962년부터는 民盟中央宣傳部 副部長을 지냈고, 政協全國委員會 委員, 民主同盟 中央委員, 中國作家協會 會員 등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틈틈히 수많은 글을 써서 新聞·雜誌에 발표하는 한편, 인도의 네루·영국의 조지 엘리어트·조선의 모사토프 등의 작품도 번역 출판하였다. 또 그는 1977년 이후로 수많은 論文과 글을 발표하고 있다.

#### 〈主要著述〉

- 1945 : 「歐洲文學史簡編」(桂林文化供應社)  
 1949 : 「小二黑結婚」(快板<sup>3)</sup>으로 改編, 人民出版社)  
 1955 : 「新文學史綱」第一卷(作家出版社)  
 1978 : 「漫說紅樓」(人民文學出版社)  
 「紅樓佛影」(上海文藝出版社)

15) 詹鏞 : 1916년 생. 山東省 聊城縣 사람. 1934년 北京大學 中文科에 입학하여 學生運動에 참여했고, 1938년 雲南西南聯合大學으로 옮겨가 졸업. 그 후 西南聯合大學의 助教를 지냈고, 浙江大學 講師(1940년 후), 四川 白沙女子師範學院 副教授(1943~1946), 安徽大學 教授(1946),

3) 快板 ; 中國 北方에 주로 유행한 曲藝의 一種. 演者는 비교적 빠른 拍子로 吟誦하는데, 基本的으로는 七言形式 爲主이나 간혹 說白도 넣어 抒情을 모두 겸함. 「小二黑結婚」은 趙樹理(1906~1970)의 代表作으로 毛澤東의 「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에서 제시한 中共의 文藝路線을 가장 充實히 反映한 作品이라 한 때 크게 稱頌되었었음.

山東師範學院 教授 겸 國文科 主任(1947) 등을 歷任함.

1948년엔 미국유학을 하여 처음엔 比較文學, 뒤에는 心理學을 연구, 1950년엔 미국 南加州大學 碩士, 1953년에는 컬럼비아大學 師範學院 心理學博士學位를 받음. 공부하는 동안 여러 대학에서 중국어 또는 중국 문학을 가르치기도 함.

1953년 抗美援朝 期間에 귀국하여, 1954년 天津師範學院(河北大學의 前身) 心理學教授, 1961년에는 河北大學 中文科 教授로 옮겨 앉았고, 지금은 古典文學教研室 主任을 맡고 있음.

#### 〈主要著述〉

1957 : 「李白詩論叢」 (作家出版社)

1958 : 「李白詩文系年」 (作家出版社)

1979 : 「唐詩」 (上海古籍出版社)

「劉勰與文心雕龍」 (北京中華書局)

16) 劉逸生 : 1917년 생. 原名은 劉日波이고 廣東省 中山縣 사람.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어서, 小學만 겨우 졸업하고 1931년 香港으로 가 「大同日報」의 雜役夫로 일하였다. 1933년엔 다시 中山縣 어느 商店 店員으로 일하다, 香港 「中興報」의 見習 校訂員을 거쳐, 1938년엔 香港 「星島日報」로 옮겨가 校閱·編輯을 맡았었다. 1939년에 香港 中國新聞學院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발전이 빨라졌다.

1942년 佛山第五中學 語文教師, 1943년엔 梧州로 가 「言報」의 編輯主任을 맡았다. 1945년 抗日戰에 승리한 뒤 廣州로 가 「晨報」의 編輯主任을 지냈고, 다시 香港 「正報」의 副總編輯, 「華商報」의 編輯(1949)을 맡았다. 1950년엔 廣東으로 돌아와 廣州 「南方日報」 副刊副主編을 지내다 1957년 「羊城晚報」가 創刊되면서 그 곳 第二副刊部 主任이 되었다. 1974년부터 1978년 사이엔 廣州 中山圖書館의 幹部로 일했고, 1979년엔 暨南大學 新聞科로 옮겨가 일하고 있다.



이 밖에 作協廣東分會(1958). 中國作家協會(1962)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主要著述〉

1961 : 「元劇史話」(香港 中華書局)

「唐詩小札」(廣東人民出版社, 1978년 重訂本 나옴)

1978 : 「龔自珍己亥雜詩注」(香港中華書局)

1979 : 「宋詞小札」(「廣州文藝」에 連載)

「龔自珍詩選」(浙江人民出版社)

17) 馬茂元 : 1918년 생. 安徽省 桐城縣 사람. 본시 선비 집안이어서 家庭教育을 받고 어려서부터 文學을 좋아하였다. 桐城中學을 나온 뒤, 1938년에 無錫國學專修學校를 마치고 한 때 고향의 中學校 教員을 지냈고 安徽省 中小學校材編審會의 編審으로 있었다. 그리고 틈틈이 現實問題를 다룬 愛國的 論文을 여러 곳에 발표하였다. 中共이 大陸을 차지한 뒤엔 桐城師範·南京市立師範·上海同濟中學·華東速成實驗學校·上海師專·上海第一師院에서 教員·副教授·教研室 主任 등을 지냈다. 1958년 이후로는 上海師範學院의 教授로 있다.

〈主要著述〉

1957 : 「古詩十九首探索」(作家出版社)

1958 : 「楚辭選」(人民文學出版社)

1960 : 「唐詩選」(人民文學出版社)

1961 : 「中國歷代文論選」(共同編輯, 中華書局)

1963 : 「中國歷代文學作品選」(胡雲翼과 共編, 上海中華書局)

18) 楊公驥 : 1921년 생. 原名은 楊振華이며, 河北省 正定縣 사람. 1938년에 延安으로 가 中共에 가담했고, 陝北公學·魯迅藝術學院 등에서 공부하며 文化教員 노릇도 하였다. 中共治下로 들어가면서 張家口로 가 宣化新華煉鋼廠工會에서 일하였다.

1946년에야 이른바 東北解放區로 가 佳木斯東北大學의 教授 겸 國文科 副主任이 되었고, 1949년 東北大學이 長春으로 옮겨 가 吉林師範大學이 된 뒤에도 文學教研室과 古典文學教研室 主任, 圖書館 館長, 校革委會常委 등을 지냈다. 그 밖에도 中國作家協會 東北分會(沈陽) 理事, 作協吉林省分會 主席, 中國科學院吉林省分院 文學研究所 副所長, 吉林省哲學社會科學研究所 副所長 등의 일을 하였고, 教育部 文學史教材編寫會議主持人으로 「高等院校中國古典文學史教學大綱」을 編寫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吉林省文聯 副主席, 中國作家協會吉林省分會 副主席, 吉林省哲學社會科學學會聯合會 副主席, 「社會科學戰線」의 編委 등도 맡고 있다.

#### 〈主要著述〉

1957 : 「中國文學史講義」 (吉林人民出版社)

「中國原始文學」 (吉林人民出版社)

「周代詩歌」 (吉林人民出版社)

「中國文學」 (吉林人民出版社)

1962 : 「漫談楚的神話·歷史·社會性質和屈原的詩篇」 (吉林人民出版社)

「唐代民歌考釋及變文考論」 (吉林人民出版社)

19) 馮其庸 : 1924년 생. 이름은 遲, 字가 其庸이며, 筆名으로 起龍·季文·馮丰 등을 쓰기도 하였다. 江蘇省 無錫縣 사람. 小學 5학년 때 고향이 日本軍에게 점령당하여 공부를 포기하고 농사를 짓다가, 뒤에 겨우 中學을 졸업하고 高等學校에 진학했으나 집안이 어려워 그만두고 小學校 선생노릇을 하였다. 抗日戰에 승리한 뒤에야 無錫國學專修學校에 들어가 1948년에 졸업한 다음 共產黨의 地下活動에 참여하였다. 1949년엔 中國人民解放軍에 들어갔다 곧 나와 無錫第一女子中學 선생노릇을 하였다. 1954년엔 北京으로 옮겨 가 中國人民大學 教授로 근무하고 있다.

無錫에서는 無錫市の 人民代表였으며, 北京市文聯 理事, 中國作家協會 會員, 中國戲劇家協會 會員 등으로도 활약하였다.

## 〈主要著述〉

1978 : 「論庚辰本」(上海文藝出版社)

1979 : 「曹雪芹的家世考」(上海古籍出版社)

「歷代文選」上下編(主編, 中國青年出版社)

20) 王運熙 : 1926년 생. 王蘊·申椒란 筆名을 쓰기도 했다. 上海市金山縣 사람. 어려서부터 文學을 좋아했고, 中學 때에 이미 古文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뒤, 1943년 上海復旦大學 中文科에 입학했다. 1947년 졸업 뒤엔 母校에 남아 助教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그 학교 教授겸 古典文學研究室 主任으로 있다.

## 〈主要著述〉

1955 : 「六朝樂府與民歌」(上海文藝聯合出版社, 뒤 上海中華書局에서 再版)

1958 : 「樂府詩論叢」(上海古典文學出版社, 뒤 上海中華書局에서 再版)

1960 : 「中國文學史」(復旦大學 中文科 共同編纂)

1961 : 「李白詩選」(主編, 人民文學出版社)

1962 : 「李白研究」(主編, 作家出版社)

「古代詩歌選」4冊(顧易生·徐鵬과 共編, 少年兒童出版社)

## 3. 古典文學研究業績의 特徵

1) 時期的 特徵 : 이들 大陸 學者들의 主要著述들을 時期別로 一覽하며는 당장 두드러진 큰 特徵이 눈에 뜨인다. 그것은 中共이 文化大革命을 추진하였던 1966년부터 1976년에 이르는 10년 사이에는 거의 이렇다 할 업적이 없다는 것이다. 夏承燾가 1976년에 자기의 詞作品을 모아 「瞿髯詞」라는 책을 油印本으로 내었다는데, 거기에는 抗日戰爭時期에 그가 지은 〈點絳脣—上海租界大捕愛國青年〉 같은 예전에 지은 愛國詞들이 주로 실려있을 것이며, 毛澤東도 전에 詞를 지었으니 이런 책을 낼 용기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는 唯獨 吳恩裕가 1976년에 「己卯本石頭記新探」을 내고 있을 정도인데, 이는 지금 전하는 가장 빠른 「紅樓夢」抄

본인 「己卯本」의 抄者를 비롯한 몇 가지 새로운 事實에 대한 考證을 한 것이다. 그가 본시 영국 런던大學의 政治學博士이며, 그 때도 北京政法學院의 教授였음을 생각할 때, 그의 이러한 作業은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의 일종의 逃避行爲가 아니었나 생각해 한다.

반면 이들이 두드러지게 많은 업적을 내고 있는 시기는 이른바 <百家爭鳴><sup>4)</sup>과 <大躍進運動><sup>5)</sup>이 전개되었던 1956년에서 1965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9년 동안에 이들이 낸 著書만도 69종이나 되며, 그 밖에 論文도 다른 어떤 10년의 기간 보다도 두 배 이상의 量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시기의 대조적인 학술업적의 결과는 말할것도 없이 中共政策의 영향이 그대로 들어난 것이다. 비교적 자유로운 言論이 容許되었던 <百家爭鳴>의 시기에는 學者들의 뜻대로 학술연구가 가능했으나, 極端的인 左傾化로 온 국민을 몰아붙였던 文化大革命 시기에는 아무도 학술연구를 진행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학자들은 대개가 共產黨員이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가난한 집안 出身이며, 그렇지 않은 학자(余冠英·傅庚生·王瑤·王運熙)라 하더라도 모두 中共의 黨政策에 協助的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마음대로 학문을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학문이란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임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이전에 저술을 남긴 76세 이상의 학자 7명을 놓고 볼 때, 1940년대의 이들의 업적은 1930년대의 업적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나이로 보아서는 1940년대가 1930년대 보다 이들의 학문이

4) 百家爭鳴; <百花齊放>이라고도 하여, 1956년에 社會主義 科學·文化·藝術의 발전을 促進하기 위하여 썼던, 일종의 自由言論을 宣揚하였던 政策. 그들은 共產黨의 領導 아래, 科學上 서로 다른 學派사이의 자유로운 論爭이나, 藝術上의 서로 다른 形式과 風格 등이 자유로이 발전토록 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5) 大躍進運動; 1958년에 中共이 人民公社 運動과 함께 農工業 生産의 急速한 발전과 함께, 百家爭鳴에 따른 文化의 발전을 極力 試圖하였던 運動.

훨씬 더 圓熟해져야 하고, 한창 연구업적을 내었어야 할 때라는 사실과는 相反되는 현상이다. 그 뿐 아니라 70代 60代에 속하는 餘他の 사람들도 1940년대에는 별반 著述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20명이 남긴 著述 전부를 합쳐도 10種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무래도 抗日戰爭과 國共의 紛爭이 이들로부터 학문연구에 종사할 시간과 精力을 모두 앗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毛澤東이 죽고 이른바 四人幫이 체포된 뒤인 1977년 이후에도 적지 않은 著述을 내고 있으나, 역시 몇가지 特徵이 두드러진다. 첫째 이들 20명 중 著述을 낸 학자들은 반을 약간 넘는 13명 뿐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전의 이들의 論文이나 文章이 批判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는 經驗이 이들의 자유로운 學究를 妨害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當場은 자유로운 분위기라 할지라도 언제 다시 硬化되는 政策으로 바뀔런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7년 이후라 할지라도 이를 다시 1977년부터 80년에 이르는 4년과 1981년부터 84년에 이르는 4년으로 나누어 볼 때, 앞의 4년 쪽이 뒤 4년 쪽 보다 훨씬 많은 著述을 내고 있다. 이는 앞 4년 쪽의 業績은 지난 10년의 文革期間 동안 발표하지 못했던것들 조차도 다시 整理되어 나왔었기 때문이란 이유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四人幫이 무너진 후 드러나기 시작했던 急激한 自由主義 경향에 대하여 1980년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異化論<sup>6)</sup>에 의한 反省과 1983년에 한창이었던 精神汚染<sup>7)</sup>에

6) 異化論; 異化論에 관한 글은 1980년 이래로 수백편이 쏟아져 나왔는데, 社會科學院 哲學研究所 所長인 邢賈思가 1983년 11월 5日字「人民日報」에 발표한「異化問題와 精神汚染」이란 글이 이에 대한 總括적인 問題를 다루고 있다. 中共은 이 시기에 와서 자기내 社會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思想上·政治上·經濟上의 異化問題를 들고 나와 일종의 反省論을 提起했었다.

7) 精神汚染; 특히 文藝界의 西洋 現代派 思潮에 의한 汚染이 中心問題로 다루어졌다. 1976년 毛澤東이 죽은 뒤 劉心武의「班主任」, 盧新華의「傷痕」같은 작품이 나오면서 西洋의 文藝思潮를 吸收하여 毛澤東의 文藝路線을 拒否하는 作品들이 나왔다. 이들의 思想解放的인 傾向은 다시 中共當局의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어 1983년에는「精神汚染」問題가 提起되었던 것이다. 1983년 10월에 열린 十二屆二中全會에서는“精神汚染을 清掃하자”는 要求

대한 批判 등이 학자들을 다시 萎縮시켰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中共의 學界는 자기네 古典文學研究에 있어서조차도 政策變化에 敏感하게 反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個人的 特徵 : 대체로 大陸의 學者들은 나이 80대라면 한창 공부하고 연구할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사이, 70대라면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사이는 대체로 愛國運動이나 抗日運動 등으로 말미암아 學究에 큰 지장을 받았다. 그러기에 70대 이하의 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80대의 학자들도 1940년대 이전의 연구업적 보다는 1950년대의 업적이 훨씬 많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古典文學者로 成長하기 위한 正式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현상과도 聯關이 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 標本으로 든 20명의 학자 중 教育을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는 余冠英·傅庚生·王瑤·王運熙의 네 명 정도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일을 하다가 뒤에 가서 古典文學者로 變身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吳恩裕 처럼 政治學者로서 古典文學研究를 兼業하고 있는 사람조차 있다.

무엇보다도 두드리진 變身은 처음엔 文學創作이나 現代文學 또는 外國文學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뒤에 가서 古典文學研究로 돌아선 것이다. 余冠英·楊蔭深·吳世昌·錢鍾書 같은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現代文學이란 古典文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어느정도 양해될 수 있는 일이다. 그 중 吳世昌과 錢鍾書는 지금까지 作家로도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錢鍾書는 본서 淸華大學과 영국 옥스퍼드大學에서 英文學을 전공한 위에 파리大學으로 가 프랑스文學을 공부하고, 귀국한 뒤에도 여러 大學에서 外國文學을 주로 講義하다가, 1953년에야 방향을 바꾸어 中國社會科學院 中國古典文學組의 研究員으로 變身하고 있다.

가 正式으로 나왔었다.

吳世昌이 燕京大學 英文科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燕京學報」(1930, 第八期)에 〈釋「詩」·「書」之誕〉같은 論文을 발표하고 있고, 결국은 中國의 古典文學 研究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현상은 西洋文學 研究에 있어서의 東洋人의 능력의 限界 같은 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들 보다도 더욱 特異한 것은 완전히 다른 分野로부터 古典文學家로 變身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楊公驥는 17세 때 延安으로 가 中共에 가담하면서 어설픈 陝北公學과 魯迅藝術學院에서 공부하여 文化敎員 노릇을 한 것이 그의 學歷과 經歷의 전부였다. 이 때 延安에서의 學習이 그들의 古典文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의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東北地方을 中共이 점령하게 되자, 그는 곧(1946년 가을) 25세란 나이로 佳木斯東北大學의 敎授가 되어 中國文學科 副主任으로 행세하게 된다. 1949년 東北大學이 長春으로 옮겨가 吉林師範大學이 되었는데, 줄곧 그곳의 文學敎研室 主任, 古典文學敎研室 主任, 圖書館長, 校革委會 常委 등을 歷任하고 있다. 張畢來도 그와 경우가 비슷하다. 그는 1936년에 浙江大學 敎育科에 입학했으나 다음 해에 抗日戰爭이 시작되자 學業을 썩고 抗日運動에 投身하였고, 1938년에는 中國共產黨에 入黨하여 地下活動에 從事하였다. 그는 中共이 大陸을 차지하는 1949년에 이르기까지 두어번의 獄살이도 하면서 抗日鬪爭과 革命運動에 餘念이 없는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는 1949년 말에는 長春으로 가 그곳 東北大學 中文科 敎授가 되어(35세) 中國文學者로 變身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中國文學科 敎授 또는 古典文學者가 된 것은 이들이 그 方面에 學究業績이나 研究能力이 있어서가 아니라, 論功行賞으로 그들의 中共革命에 끼친 功勞에 따라 그 자리를 報賞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中文科敎授가 된 다음에야 不得已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中國古典文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中共에 있어서는 政治가 學術을 支配할 뿐만 아니라 大學敎授라는 職位도 마음대로 定해주고, 그의 앞으로의 專攻

조차도 決定해 주는듯 하다. 馮其庸도 高等學校 1學年 때 학교를 그만두고, 世界大戰이 끝난 뒤에 國學專修學校를 나오기는 하였으나, 1948년 졸업을 하자마자 中共 地下活動에 참여하다가 中國人民解放軍에 들어갔었다. 곧 女子中學 선생으로 직업을 바꾸기는 하였지만, 1954년에는 갑자기 北京으로 옮겨 가 中國人民大學 教授가 되면서 中國古典研究家로 발돋움 하고 있다.

詹鐸은 본시 北京大學 中文科 出身이긴 하지만, 美國에 가서 1953년에 컬럼비아大學에서 心理學博士 學位를 받았고, 귀국하여 河北大學의 心理學 教授로 있다가, 1961년에 같은 大學 中文科 教授로 옮겨와서 中國古典文學者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吳恩裕가 政治學을 하면서 古典文學研究를 並行하고 있고, 姜亮夫는 歷史學·考古學도 함께 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래도 앞의 張舉來·楊公驥·馮其庸 같은 이들에 비하여는 學問의 基礎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다시 周振甫는 中國文學者로 「詩詞例話」<sup>8)</sup> 같은 책도 내고 있지만, 20세 때 上海開明書店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出版社에서만 일해온 사람이다. 楊蔭深도 教育은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美術專科學校出身으로 줄곧 出版社에서만 일해왔으나 古典文學家로도 행세하고 있다. 또 劉逸生이 겨우 小學을 마치고 新聞社 雜役을 맡아 일하기 시작하여 지금껏 新聞社를 떠나지 않았음에도 中國古典文學家로도 알려지고 있는 경우와 類似하다. 出版社는 책을 내는 곳이고 新聞社는 글을 써야 하는 곳이라 職責上 많은 책을 읽다 보니 學者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은 이들 중에는 가난한 집안 出身이 많다는 것이다. 17세에 延安으로 달려가 中共에 가담했던 楊公驥는 말할 것도 없고, 馮其庸도 小學校 5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농사를 짓다가 다시

8) 「詩詞例話」; 이 책은 詩話·詞話와 詩詞에 대한 評語들을 기초로 하여 詩詞를 감상하면서 詩詞의 創作과 修辭·風格 및 文藝理論 등을 紹介한 著書로 詩詞를 공부하는데 좋은 參考書가 될 것이다.



高等學校에 들어가서도 집안이 어려워 1학년 때 학교를 떠나야만 했었다. 劉逸生은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돈이 없어 中學을 다닐 수가 없었고, 吳世昌도 가난한 집 出身으로 일찌기 孤兒가 되어 商店의 店員으로 일했었다. 이 밖에도 집안이 좋고 正式으로 學校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이것은 共產社會에 있어서의 出身成分의 重視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 것이다.

이상 얘기한 特徵들과 關聯이 밀접한 것이지만, 또 하나 두드러진 현상은 이들의 學問이 雜駁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馮其庸·張畢來·吳恩裕·吳世昌 등이 모두 「紅樓夢」研究를 專攻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紅樓夢」이란 小説은 共產主義 理論에 입각한 文學批評의 材料로 응용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이고, 古典文學에 대한 基礎가 단단하지 않아도 研究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들을 「紅樓夢」研究로 몰고간 듯하다. 한 때 〈紅學〉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大陸에 「紅樓夢」研究가 성행한 原因의 하나가 바로 이런 점일 듯도 하다. 이들 네 사람 모두가 앞에서 言及한 것처럼 古典文學을 專攻할 基盤을 닦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紅樓夢」研究 이외에는 주도 잡된 글들을 쓰고 있다. 吳恩裕는 본시 政治學이 專攻인 사람이니 말할것도 없거니와, 張畢來는 인도 네루首相의 「자유를 좇아서—네루 自叙傳」·「監獄, 나의 第二家庭」같은 책과 영국의 조지 엘리어트, 소련의 모샤토프의 小説 등을 번역하고, 또 趙樹理의 小説 「小二黑結婚」을 民俗演藝의 하나인 快板으로 改編하고 그 밖에 수 많은 雜文들을 쓰고 있다. 吳世昌도 英文으로 많은 論文을 발표하여 國外에 有名하기는 하나, 著書만 보더라도 「中國文化와 現代化問題」(1948, 上海觀察社)와 編譯인 「필리핀共和國」같은 것이 있고, 論文도 雜多한 方面에 걸친 것들이다. 馮其庸도 「紅樓夢」이외에 戲劇·詞·詩·小説·散文 등 그다지 많지 않은 業績이면서 걸치지 않은 데가 없는 정도이다. 그 밖에 姜亮夫는 「楚辭」研究에 두드러진 成果를 내고 있지만, 그 밖에 小説도 쓰고 歷史·考古·言語·

文字 등 여러 면에 專攻이 걸쳐 있다. 楊蔭深도 詩·詞·雜劇·民間文學 등 關心이 多樣한 이외에 많은 雜文을 쓰고 있고, 錢鍾書도 小說을 쓰는 한편 英文學·評論 이외에 많은 雜文을 쓰고 있어 專攻을 알아내기 힘들 정도이다. 周振甫는 「毛主席詩詞淺釋」·「魯迅詩歌註」와 많은 雜文이 古典文學 研究成果를 壓倒하고 있고, 劉逸生은 元雜劇研究 이외에 詩·詞의 通俗的 解說이 專門이다. 楊公驥도 詩·樂府·楚辭·變文·民歌 등 關心 分野가 광범하다. 이들에 비하여 客觀적으로 볼 때 古典文學者로서의 修學基盤이 단단하다고 생각되는 余冠英·傅庚生·王瑤·馬茂元·王運熙 등은 그들의 專攻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니 좋은 對照가 된다. 따라서 이들의 專攻이 雜駁하다는 것은 그들의 古典研究의 基盤이 不實한 데서 온 것이라 推測할 수도 있는 것이다.

#### 4. 結 論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現象은 古典文學研究 조차도 완전히 政治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政策의 動向에 따라 그들의 研究成果도 큰 變動이 있다. 곧 약간의 開放政策을 써서 學者들이 얼마간의 自由를 누리던 시기에는 많은 研究業績이 나오고, 다시 嚴한 左傾政策을 쓰면 이에 따른 拘束 때문에 學問研究는 전혀 進行되지 못했던 듯 하다. 자신들의 古典文學 研究가 이처럼 政策에 敏感하니 餘他 分野가 어떠한가는 想像이 되고도 남는다.

심지어 古典文學 같은 分野의 大學教授職도 黨에서 按配할 수 있다. 學問 研究의 基盤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黨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의 能力과는 관계 없이 언제나 教授職에 任命할 수 있다. 大學教授라 할지라도 그들이 重視하는 것은 學問 能力이나 素養보다도 그의 思想的인 成分인 듯 하다. 따라서 심지어 大學의 中國文學科 教授로 任命된 이후부터 職分上 古典文學研究를 시작하게 아닌가 생각되는 사람

조차도 있다.

그 위에 1940年代 이전의 抗日運動·愛國運動 등의 混亂이 젊은 사람들의 공부할 機會를 박탈하였었고, 또 中共의 學者 중에는 學者가 될 正式 教育을 받기 어려운 貧寒한 집안 出身도 많아서, 大陸의 學者들 중에는 古典文學 研究家로서는 基盤이 薄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專攻으로부터 古典文學研究로 轉向한 사람도 적지 않은데, 자기네 古典文學研究는 어느 정도 각박한 그들의 政治現實로부터 超然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곧 現實逃避的인 생각이 그들 古典文學研究로 向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 專攻이 雜駁한 性向을 보여주는 學者들이 많은 것도 위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特徵 때문일 것이다. 基礎가 弱하기 때문에 한 分野를 깊이 研究하지는 못하고, 이것 저것 機會 닿는대로 아무 問題나 건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陸에는 그들의 人口比例 이상으로 자기네 古典文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고, 개중에는 단단한 基盤을 지니고 誠實한 연구에 沒頭하고 있는 이들도 어느 地域 보다도 많음으로, 우리는 大陸 學者들의 研究에 늘 깊은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